

#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 [제22호](2016. 2/3)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 종정스님, 한수행에서 국내 교도들에게 메시지!

#### 종정스님, 한수행에서 신노 명상 (Shinnyo Meditation)을 지도

입교 80년의 2016년도 한수행은 연초의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열기 가득히 진행되었다. 금년도 부산정사에서는 “종정스님의 부산정사 낙경이 이루어지도록” 이라는 슬로건을, 서울포교소는 “세계 제일의 성장세를 보이는 한수행’ 이라는 슬로건을 각각 내걸고 참좌하였다.

개백기간에는 작년보다 많은 신도들이 참좌하여 신심의 정화를 하였다. 종정스님은 개백 첫날 신노 개조께서 세속생활을 버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신 도전정신을 강조하셨다. 둘째 날에는 구제를 위한 영계개척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보살로서 실천하신 교도인사마와, 투병중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제받는 것이 더 좋다’며 자신을 멸하신 신도인사마를 강조하셨다. 아울러 종정스님은 ”신노 명상“을 직접 지도해주셨다. 마치 만월을 자신의 가슴에 품듯 모든 것을 품어나가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나무신노를 창화합시다’며 신노명상의 핵심을 지도해 주셨다. 결원기간에는 미국, 타이완,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세계 각 의처에서 수행중인 6명의 신도

들이 함께 자리하여 좌담회를 하였다. 결원 첫날에는 신노 가르침을 구축하신 4분의 스승님에 대한 각자의 느낌, 둘째 날에는 진언밀교와 신노엔과의 관계를 조명하며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는 신노 가르침을 익혀 실제 생활에 도움되도록 살려나가자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날에는 종정스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신노 명상에 대해 직접 지도해주셨다.

#### 종정스님, 한수행에서 한국 교도들에게 특별 메시지

한수행 마지막 날 오전 종정스님께서 부산정사에 와있는 포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의 모든 교도 여러분! 기쁨속에서 잘 정진하고 계시죠!, 열심히 행하는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한국교도 여러분들과 언제나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번 한수행 개백기간에는 제주도에 1m 정도 폭설이 쌓였고, 총본부가 있는 타치카와에도 20cm 정도의 적설과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쳤다. 마치 80년 전 범부모께서 처음 수행하셨던 당시를 추체험하게 하는 날씨였다.

## 2월 4일 신노영묘찬양법요 봉수

한수행 만원(滿願)의 다음 날 2월 3일 절분회도 종료된 2월 4일 새벽에 쇼쥬신인님은 타마에(玉惠)님으로부터 근본 영언을 받으시며, 영능을 상승하셨다. 종정스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신노영묘 찬양법요를 봉수하시고, 향후 매년 봉수하기로 하셨다.

## 2월 8일 입교제(立敎祭) 봉수

범부모께서 80년전 입교하신 2월 8일을 기념하여 이 날 입교 80년 신노입교제(立敎祭)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종정스님께서서는 향후 매년 2월 8일에는 입교제를 봉수하기로 하셨다.

## 한수행으로 달라진 내면을 알게 되었다는 조윤희 교도... 인터뷰

☎ 한수행 몇 번째 참좌인가요?

☞ 이번으로 5번째입니다.

☎ 이번 한수행에 임한 각오는?

☞ 작년에는 감명받은 바가 많았고, 또한 10월 성지순례 때에도 감동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금년에는 적극 참좌했습니다.

☎ 한수행 이후 달라진 바가 있는지요?

☞ 작년까지는 접심수행을 수개월에 1회씩 하는 형식이어서 영언도 다소 명확하지 않아 접심수행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 한수행 후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영언의 내용도 상당부분 이해하게 되었고,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 의외로 잘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 나의 외피를 벗겨내 주시는구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달의 유모어 : 개 시리즈>

1. 백마리 개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뛰어난 수행법은?
2. 불자들이 가장 버려야 할 '개' 두 마리는?

<정답은 제일 끝 페이지에 게재>

**[체험담] 세 가지 실천으로 남편이 직장 구한 이후 ...감사로 낙경법요를 앞당기려 정진하고 있는 김영선 교도**

2007년 지인의 소개로 가르침에 1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냈지만, 취직이 맺어졌습니다. 신노엔은 부처님 가 되지않아 남편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르침을 현대에 맞게 설해 주신다는 그리하여 남편을 설득, 함께 정진을

이야기를 듣고 귀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찰과는 다소 다른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고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당시 가정 및 남편의 직장관계로 저는 심신

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털어놓고 부처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노엔에서 기도와 정진을 시작하긴 했으나, 마음의 괴로움은 좀체 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귀원, 점심수행 및 세 가지 실천을 거듭하면서 심적 괴로움을 전부 말씀드리면 신기하게도 무언의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절실하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각오를 하며 점심수행에 정진했습니다. 특히 상주를 믿고 자신을 바꾸는 정진을 했습니다. 덕 쌓기 실천도 계속 수행하자 참마음으로 베풀어주시는 제섭, 섭수, 받고대수를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혼에 스며드는 기쁨으로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진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부처님 구제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신노 부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귀하게도 성지 단참에 참석했고 신노 게이슈사마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오야소노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포교사분들의 따뜻한 배려, 단참교도들의 자세 등을 보면서 저도 신노 교도로서 자신부터 부동의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신노 부처님, 게이슈사마께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지지않는 마음으로 세 가지 실천, 대승 이타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의 그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가라는 영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부산정사에 신노 게이슈사마를 모시고 낙경법요가 행해지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또한 원만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정진을 거듭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이도 한수행의 기쁨으로 잊어버린 김재숙 · 엄화용 교도와 의 인터뷰

**☎** 두 분은 항상 함께 다니고 계시죠?

☞(김) 한국 절에 오랜기간 함께 다녔고, 이제는 신노엔에도 함께 참좌하고 있습니다.

**☎** 한수행 참좌실적은?

☞(김) 신노 부처님과 결연한 것이 작년이어서 작년에 처음 참좌했고, 금년에는 두 번째입니다.

**☎** 작년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김) 수행방식이 한국 사찰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두 법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를 연민해주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때부터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어요.

**☎** 한수행 참좌이후 변화가 있다면?

☞(김) 점심에서 보살이 되어가고 있다는 영언을 들었어요. 아직까지 저의 기도가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편한 느낌이 들어요. 향상되는 느낌, 잡념이 사라지고 기도가 잘 되고, 항상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 정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 콩나물 기르기와 같은 것 아닌가 생각해요. 콩나물시루에 콩을 쏟아 부으면 처음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수북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사람인도 쉽지 않죠?

☞(김) 기도가 성취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코 걸돌고 있지 않고, 또한 기도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함께 정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정진 중입니다.

**☎**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엄) 아들 부부가 결혼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애기가 없어요. 손자를 빨리 낳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 신노엔이 한국 사찰과 비교하여 어떠한가요?

☞(엄) 부처님 법이 같으니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에서는 연초에 7일간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신노엔은 매우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달의 유모어 정답>

1. 백견이 불여일행법(百犬之不如一行法)
2. 선입견, 편견